

“빈집이 생기 가득한 정원으로” 동구 정비사업 ‘눈길’

올해 첫 대상지 지산동 ‘지막샘’ 인근 에메랄드그린·황금사철나무 등 식재 ‘구민 정원사’가 관리…區 “계속 추진”

광주 동구 관내 빈집이 철거 정비 사업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정원으로 잇따라 탈바꿈 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동구에 따르면 지막샘(천년샘) 인근의 붕괴 위험 빈집(지산동 95-8)을 철거하고 주민이 직접 가꾸는 사계절 ‘순환정원’을 최근 조성했다.

올해 첫 번째 빈집 철거 정비 사업이 이뤄진 해당 부지에서 지난 12일 동구와 지역 주민들은 함께 수목을 식재했다.

1967년 5월 준공된 이곳은 2019년부터 빈집이었던 터라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집중 관리 대상이었다. 다만, 소유자의 미동으로



동구는 최근 지막샘(천년샘) 인근의 붕괴 위험 빈집을 철거하고 주민이 직접 가꾸는 사계절 ‘순환정원’을 조성했다.

〈광주동구 제공〉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동구는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에 나섰고

올해 초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냈다.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선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 동구는 지난 1월 관할 행정복지센터

회와 통장단 의견 수렴,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활용 방안을 논의했고 정원 조성을 최종의견으로 결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은 직접 삽을 들고 에메랄드그린, 황금사철나무, 철쭉, 홍가시나무 등 사계절 동안 다채로운 경관을 제공하는 수목을 심으며 순환정원을 완성했다.

사계절 순환정원은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한 ‘구민 정원사’가 관리하며 가꿔 나갈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안전사고 위험이 컸던 공간이 주민들의 아이디어와 참여 덕에 아름다운 정원으로 거듭나 감회가 새롭다”며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소유자와 활용 방안 구상부터 식재까지 함께해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빈집 정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해 11월에도 서석동 5-4번지에 위치한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해서 순환정원으로 만든 바 있다. /인재영 기자

남구 다목적체육관 송전탑 역사 속으로

집단 민원 17년만...5월 이설 마무리

공정률 85%...철거 부지 주차장 조성

광주 남구 진월동 다목적체육관 내 고압 송전탑이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 제기 17년 만에 이설된다.

15일 남구에 따르면 진월동 다목적체육관 송전탑 이설 작업 주민 설명회 및 안전 기원제가 이전 서서 문중,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 관계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일 진행됐다.

설명회와 기원제는 다목적체육관에서 제2순환

도로 맞은편에 새로 만들어진 송전탑으로 선로를 옮기기에 앞서 경과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공정이 안전하게 마무리되도록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송전탑 이설 공정률은 85% 수준이다. 기존 위치에서 제2순환도로 맞은편에 설치한 신규 송전탑까지 거리는 180m 정도로, 이 구간에 존재하는 송전선로는 모두 지중화된다.

하늘을 거미줄처럼 뒤덮은 송전선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은 2009년 1월 진월동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제기된 지 약 17년 만이다.

이후 남구는 신규 부지의 소유주인 서서 문중과 한전 간 3자 협의를 거쳤고 광주시 역사 안전

과 이설에 합의하면서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신규 송전탑 선로 이설 작업은 앞으로 2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남구는 보고 있다.

한전은 선로 이설 공정 마무리 후 기존 송전탑을 철거할 계획이며 이후 확보된 약 130평의 부지에는 다목적체육관 이용 주민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이 조성된다.

남구 관계자는 “토지 소유 문중과 한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덕분에 송전탑 이설 마지막 단계까지 올 수 있었다”며 “송전선로 이설이 완료되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함께 도시 미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형우 기자

북구, 올해도 소상공인 지원 ‘든든’

전년비 19억 늘어난 55억 편성

3대 전략·32개 사업 구성·추진

광주 북구가 지역경제의 핵심 축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 55억원 규모의 종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5일 북구에 따르면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로 소상공인이 성장하고 경제가 살아나는 북구’를 비전으로 한 ‘2026년 소상공인 종합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계획은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골목경제 활성화 ▲서민경제 안정 등 3개 목표 아래 3대 전략과 32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총 투입 예산은 지난해보다 19억원 늘어난 55억원이다.

북구는 지난해 개소한 소상공인 신성장 지원센터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를 활용한 판매 지원을 이어간다.

또한 북구 소상공인 전용 AI 지원 플랫폼을 운영해 지원사업 신청과 정보 제공을 돕는다. 사업장 환경 개선을 위한 아트리터치 지원사

업(6천800만원)과 노후 주방시설 개선 사업(4천만원)도 실시한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포함됐다. 골목형상점가 마케팅 지원에 1억6천만원, 시장 매니저 운영에 2억4천만원을 투입해 상권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오는 10월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교육관을 개관해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과 지원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방식으로 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3무 특례보증’과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이자를 지원하는 ‘포용금융 이차보전 사업’도 지속 전개한다.

/윤찬용 기자

서구, 24시간 건강정보 ‘건강백세봇’ 운영

카카오톡 챗봇 활용...증명서 발급 등

광주 서구가 주민들의 건강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챗봇 서비스인 ‘건강백세봇’ 운영에 나선다.

15일 서구에 따르면 건강백세봇은 카카오톡을 활용해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시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건강 정보 안내 서비스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보건소 주요 사업과 건강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챗봇 서비스는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정보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개 및 증명서 발급 ▲예방접종 및 감염병 관리 ▲병원·약국 및 응급의료 안내 ▲임신·육아 및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마음건강 및 찾아가는 보건소 ▲생활 건강정보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특히 건강진단결과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절차 안내, 국가예방접종 일정 확인, 주변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안내, 임신부 지원사업 신청 정보 등을 챗봇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차대 조기검진과 마음 건강 상담 등 보건소 주요 사업 안내도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서구 주민은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광주서구보건소건강백세봇’을 검색하고 채널을 추가하면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이원구 서구보건소장은 “이번 챗봇 도입은 디지털 환경에 맞춘 스마트 보건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필요한 보건 서비스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상 기자

광산구, ‘아동 알레르기’ 예방 참여기관 모집

오는 20일까지 접수...관리법 교육

광주 광산구는 15일 “아동기 주요 알레르기 질환의 인식 개선과 건강한 생활 습관 유도를 위한 ‘알레르기 박사되기 대작전’ 프로그램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관내 지역 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비염과 천식, 아토피 피부염 등에 대한

올바른 관리법을 집중 안내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만성질환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질환은 조기 교육과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한 만큼, 아이들이 올바른 지식을 습득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윤근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